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38호

### 체육계 성폭력 문제

**이규현 성폭행 사건 농친 ‘스포츠윤리센터’...유명무실 또 ‘도마’**

백담 CBS노컷뉴스 기자

**‘체육계 미투’ 체조협회 前 간부, 1심 벌금 불복해 항소**

위용성, 이수정 뉴시스 기자

### 국내 프로스포츠와 워라벨

**스포츠- ‘흑사’ 강요 프로스포츠...가장 큰 피해자는 선수, 팬**

이준호 문화일보 기자

### 스포츠인권

**메달전사 집착 이제 그만, 스포츠 인권 개선 나설 때**

김용수 강원체육시민연대 체육학박사

인도 패럴림픽 육상 선수 매니쉬 판데이

**다리 잃고 육상선수 된 그... 메달 딴 뒤 서울대 대학원생 됐다**

이병준 중앙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이규현 성폭행 사건 농친 '스포츠윤리센터' 유명무실 또 '도마'

노컷뉴스  
백담

2022.09.21

피겨스케이팅 이규현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으로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스포츠 윤리센터는 사건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스포츠계 비위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해야 할 기구가 즉각 대응 및 사후 조치에 완전히 실패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징계권은 여전히 대한체육회에 있어 사실상 조사 이상의 권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범죄 피해 대응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 '사법 경찰단' 법안 계류... '징계권'도 대한체육회에

2019년 스포츠계 미투와 조재범 사건,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최속현 선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2020년 8월, 스포츠 분야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신설됐다. 이전에도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 인권센터'가 운영되긴 했으나 내부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기구로 분리됐다. 센터가 신설되면서 지도자의 (성)폭력 등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 운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설립 2년이 지난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 내 사법경찰관 제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에는 징계권·강제조사권 없이 단순 조사권만 있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에 대한 동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센터가 생긴 취지가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폐쇄성, 파벌주의를 타파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징계권이 여전히 대한체육회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비리에 대한 징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가 최초로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체부에 징계 요청·권고사항을 보고한다. 해당 보고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전달하면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협회, 연맹)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함 위원은 "윤리센터 내 징계권이 없다는 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징계 권한은 각 종목단체에 있는 거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윤리센터의 원래 권고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 현재 윤리센터장도 경찰 출신으로 모신 것으로 아는데 사법경찰제 도입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며 "수사권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협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권한, 징계 권한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센터가 출발하다보니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단순히 윤리센터가 일을 잘 못한다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태생부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체육시민연대 관계자 A씨 또한 '강제 조사권' 없이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범죄 예방, 인지 조사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모든 의심 사안은 스포츠 윤리센터로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검찰이나 경찰처럼 조사의 전문성이 축적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춰야 윤리센터가 제 역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윤리센터는 '제명 권고'...실제론 '단순 경고' 간극 커

스포츠 윤리센터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 B씨는 조사 주체와 징계 주체가 다르다 보니 윤리센터에서 권고한 징계와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윤리센터가 요청·권고한 징계 수위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징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센터는 자격 취소나 정지 1~3년 정도로 의결했는데, 공정위에서는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보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센터의 조사 결과에 크게 겁내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강원도 육상연맹의 경우 연맹 회장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센터에서 조사 후 징계 요청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강원도 육상연맹 회장이 자기 스스로에게 징계 내리진 않을 것 아닌가.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강원도 육상연맹에 (징계) 내려봤자 그게 안된다"고 자체 징계권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이규현 코치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했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코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그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체육계 미투’ 체조협회 前간부, 1심 벌금 불복해 항소

NEWSIS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연인관계라고 말하고 다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65)씨 측은 지난 23일 1심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가 자신으로부터 3년 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지난 16일 김씨에게 검찰 구형액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스포츠- '혹사' 강요 프로스포츠 가장 큰 피해자는 선수, 팬

LIV골프인비테이셔널(LIV)은 지난 6월 첫 대회를 치르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주목을 끌었다. LIV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밀친.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를 통해 테러, 민간인 사살, 인권유린이란 오명을 씻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등과는 다르게 '여유'를 선수들에게 보장한 것도 LIV의 인지도를 높였다.

LIV는 3라운드, 54홀로 대회를 치른다. PGA를 포함, 일반적인 투어는 4라운드다. 그리고 LIV 대회 수는 훨씬 적다. LIV가 6월 공식출범했으니 다음 일정을 비교하는 게 좋다. LIV는 내년에 14개의 대회를 치른다. 반면 PGA투어 2022~2023시즌은 모두 47개 대회다. 대회별 상금은 LIV가 월등히 많다. 그래서 LIV는 골프의 워라벨에 비유된다. 장타자 브라이슨 디샬보(미국)는 LIV로 옮긴 이유로 "여유 있는 일정, 골프와 삶의 균형"을 꼽았다.

선수의 대회 참가는 노동이다.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하고 출전해 상금, 즉 임금을 받는다. PGA투어 선수들은 한 해 24~30개 대회를 치른다. 30차례 이상 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출전이 잦으면 잦을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IV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적은 출전, 많은 상금이란 달콤한 열매를 제시했고 디샬보와 더스틴 존슨(미국) 등 스타급이 LIV로 넘어갔다. 출전 수는 특히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출전할 때마다 육체적인 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스포츠에서 워라벨은 꿈꾸기조차 어렵다. 프로야구 KBO리그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규리그 뒤엔 또다른 이벤트, 포스트시즌이 진행된다. KBO 정규리그는 팀당 144경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팀당 162경기로 KBO보다 경기 수가 많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MLB의 선수층은 두텁다.

144경기를 휴식일 없이, 하루 1경기씩 치른다고 가정하면 5개월 가까이 매일같이 냉정한 승부를 펼치는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는 이유. 부상을 피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져 경기력이 저하되곤 한다.

프로농구 KBL도 마찬가지다. 오는 10월 15일 2022~2023시즌에 돌입하고 팀당 54경기를 치른다. 역시 인적 자원에 비해 경기 수가 많은 편이고 정규시즌에서도 자주 부상자가 나와 골머리를 앓는다.

경기 수가 많은 건 이유가 있다. 국내 프로 스포츠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기업체에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 효과 때문. 거액을 투자해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미디어 노출 극대화를 원하며, 이로 인해 경기 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그런데 '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질'의 하락이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선수의 노동강도, 노동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전력에서 이탈하는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품질 저하는 상품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포츠의 경기력 저하는 경쟁력 하락, 전반적인 전력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노출, 즉 중계방송 횟수가 시청률로 연결되는 건 결코 아니다. 고품질의 상품 만족도가 높기 마련. 이젠 스포츠라는 상품의 질적 향상을 고민할 때다.

# 메달전사 집착 이제 그만, 스포츠인권 개선 나설 때



한국에는 두 가지 스포츠가 있다. 메달 따는 스포츠와 생활로서의 스포츠다. 특히 국가 주도 체육정책과 엘리트 스포츠주의는 '메달 전사'로 어린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른들만 국위선양 강박에 사로잡혀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에 선수들의 인권은 늘 설 자리가 없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뚜렷한 발전을 이뤄왔지만 유독 스포츠계는 뒤쳐져 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2008년 언론 보도로 폭로된 직후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2019년 빙상과 유도 종목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2020년에는 상습폭행과 갑질을 당한 트라이애슬린 선수가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목적 조항에 '국위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분명히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불공정계약을 막을 수 있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기준도 강화했다.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조치와 함께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하며 고발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수단이 동원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스포츠클럽법은 지역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기적인 체육활동 진흥 단체인 스포츠클럽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학교운동부나 동호인 등 조직체를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천명하면서, 관련 시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 4대약을 근절하겠다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켰지만 존재는 희미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나오는 대책은 이전 대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폭언하고 폭행하지 않는 1차적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비인기 종목인 육상, 체조, 근대5종 등은 국가가 체육중·고교에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정부는 학생선수가 초·중등 의무교육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을 운동 속에 고립시키고, 낙오되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지게 만들면 아이들은 각종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채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운동 이후의 미래를 꿈꾸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로서 즐기고, 국가가 메달에 대한 집착에서 내려놓는 데서 스포츠 인권 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다리 잃고 육상선수 된 그... 메달 딴 뒤 서울대 대학원생 됐다

2014년 튀니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그랑프리남성 T44(장애 육상 종목 분류, 절단 및 기타 장애) 200m 은메달(27.71초). T42~T44 100m동메달(13.00초). 인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선수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매니쉬 판데이(30)의 기록이다. "어떻게든 졸업해 취직" 할 생각뿐이던 경영학과 학생은 다리 절단 사고 후 느닷없이 육상 선수가 됐다. 메달을 딴 뒤 한국에 와 체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다"고 돌아봤다.

## 운명 가른 통학길

2011년 4월 2일 오후 3시. 판데이는 아직도 자신의 삶이 '180도 유턴'하게 된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크리켓 월드컵 결승전에서 인도-스리랑카가 맞붙은 날이었다. 자이푸르 매니펠 대학 경영학과 1학년이던 판데이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평소엔 버스를 타고 통학했지만, 그날만은 열차를 탔다. "열차를 타면 집에 더 일찍 갈 수 있어서, 빨리 가 경기를 볼 생각이었다"는 거였다.

집 방향으로 가는 열차는 붐볐다. 열차 문 가까이 서 있던 판데이는 인파에 밀려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떨어졌다. 선로에 떨어진 그의 오른 다리 위로 열차가 지나갔다. 그는 "인도 열차는 대부분 항상 문이 열려 있다"며 "모든 일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그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가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인도가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했는지였다고 한다. 우승 소식에 쾌재를 부른 것도 잠시, 판데이는 오른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판데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너무 우울해 사고 후 거의 6개월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며 "대학도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로 가족에게 빚이 쌓여가자 그는 다시 일어섰다.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판데이는 사고 약 1년 후 의족을 달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됐고, 2012년부터 인도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의 한 회사 콜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 패럴림픽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판데이는 "패럴림픽은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방갈로르에 인도 패럴림픽 위원회 본부가 있어서, 처음으로 장애인 올림픽이란 세계를 알게 됐다"며 "다리가 없어도 스포츠 분야에서 커리어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장애인 육상 종목에 참가하려면 4000~5000달러(약 563~704만원)짜리 육상경기용 의족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의족을 만드는 회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협찬을 요청했고, 2013년 한 회사로부터 경기용 의족을 지원받아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의 한 센터에서 훈련에 나섰다. 그리고 1년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그는 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뒀다. 판데이는 "어릴 적부터 공부보다 운동이 더 좋았다. 성적이 안 좋은 만큼, 운동을 잘했다. 하지만 모든 중산층 인도 가족들이 그렇듯, 아버지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업을 갖길 바랐다"며 "어린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걸, 사고 후에 이루게 된 것"이라며 웃었다.

다음 장 계속

## 대학원생 된 장애인육상 선수

그는 최근엔 달리기를 멈추고 스포츠학을 공부하고 있다.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서다. 판데이는 “육상을 하려면 거의 매 6~7개월마다 새로운 의족을 달아야 하는데, 협찬을 받는데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반면 세계 레벨의 선수들은 대부분 더 비싸고 좋은 경기용 의족을 가지고 있었다”며 “학문으로서 스포츠를 더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자이푸르 매니팔 대학 체육학과에 재입학한 그는 졸업 후 한국으로 와 지난해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서울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양성 과정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판데이는 “한국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의 허브”라며 “한국은 견고하고 광범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 주재 경험도 많다”고 한국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메달을 딴 뒤, 인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극단 선택을 하려 했는데 당신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준 때를 꼽았다. 판데이는 “장애인들의 삶에 내가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기뻐다”며 “졸업 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일하며 인도와 한국, 전 세계가 장애인을 더 잘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고 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88올림픽 정신으로...韓, 세계스포츠 이끌때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2/09/839539/>

군산 한 초등학교 야구 감독이 선수 폭행...경찰 수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0837&ref=A>

윤이나 출전정지 3년... 쉽지 않은 선수 복귀, 해외로 눈 돌리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0500178&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0500178&wlog_tag3=naver)

스포츠 인권 ↑...울산교육청, 학교운동부 선수 원탁토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3\\_0002024034&cID=10899&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3_0002024034&cID=10899&pID=10800)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활개 이유 있었다...차단·검거율 반토막

<https://www.news1.kr/articles/4812980>

내일부터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노마스크'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925\\_0019286401](https://newsis.com/view/?id=NISI20220925_0019286401)

[김세훈의 스포츠IN] 운동과 학습, 공존법은 많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9261359003&sec\\_id=53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9261359003&sec_id=530101&pt=nv)

전남·경북, 스포츠로 하나 되다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64101666584817007>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926010014356>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